

대한 양계협회

소식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 통보 축산구조정책 걸림돌 제거

본회는 농림수산부 등 6개부처가 지난 9월17일 합동으로 확정된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농림수산부 축영 27420-370호('92.9.17)와 관련)을 각 도지부·분회 및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본회가 수차에 걸쳐 건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축사를 운영하는 선량한 양계농가들에게 안정성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관련기사 본문 55페이지).

무허가축사 구제조치에 대한 감사 표명

본회와 낙농육우협회 및 양돈협회는 이번 정부 6개부처에서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를

내린데 대해 축산농가를 대표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에 감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사료부가세 영세율 및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농지조성비 부과 등에 대한 건의서 회신 감면범위 확대 어려워

본회가 지난 8월25일 대체농가 조성비(전용부담금 포함)부과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관계로 농림수산부에 대책을 건의한 바 지난 9월21일 본회에 회신을 보내왔다.

○양계시설로 농지를 신고로 전용코자 하는 경우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전액 감면되고, 허가를 받아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는 상대농지 3,000㎡(절대농지 1,500㎡)까지 전액 면제하고 동 면적 초과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가는 신고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으므로 동 농가가 신고 및 허가전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상대농지 6,300㎡(절대농지 4,800㎡)까지 전액 면제되고 동 면적 초과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라 함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현직 농어민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자기소유농지의 일부를 양축시설등 농업용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소유 또는 임차 농지가 없고 축산업에만 종사하는 양축농가에게는 동 신고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이 아닌 순수양축 농가에게도 일정 면적의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2.2.22 농지조성비 부과규정(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계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더라도 전업규모인 2~3만수(축사시설 면적 3,000㎡기준)까지는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조성비없이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감면범위의 추가확대는 여타 감면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양축시설 농지전용규제 완화조치현황

조치일자	완화조치내용
'90.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전용제도 도입(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시설 1,500㎡까지 허가없이 모든농지(절대농지 포함)에 신고 전용가능 ○ 시장, 군수까지 허가권한위임(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시설을 위한 농민전용허가 신청시 상대농지 1,500㎡(절대농지 450㎡)까지 허가권한을 시·도에서 시·군에 위임
'91.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시설 신고범위확대(1,500㎡→3,300㎡까지)
'92.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전용허가 대상에 간이양축시설 포함. 농어가가 설치하는 모든 농어업용시설에 대한 전용부담금 전액감면
'92.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 양축농가에 대하여도 농지조성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농지 3,000㎡(절대농지 1,500㎡) 전액면제. 동 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에 대하여 50% 감면
'92.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신고수리권 내부위임(시장·군수→읍·면장)

육계값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본회는 지난 9월29일 11시 각 신문사 기자들을 초청 육계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석부 육계분과위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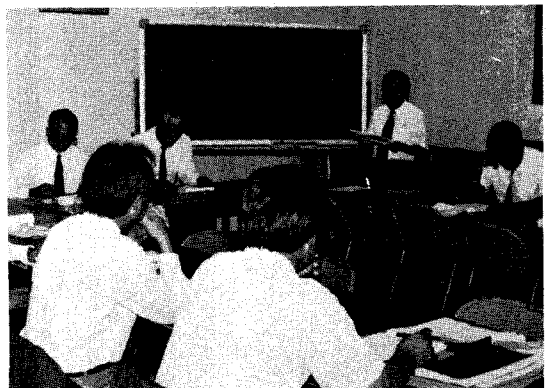
“입추조절만이 육계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해 육계 불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제5회 전국육계인대회 개최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본회는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육계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10월 9~10일 양일간에 걸쳐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5회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한다.

난상토론으로 벌어질 이번 회의에서는 △수입개방을 앞둔 육계인의 대응자세 △육계 불황 타개책 △육계 계열화 산업의 발전방향 △육계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문제점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양계업 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 개최
기금조성방안 모색**



제2차 양계업 자조금관리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9월15일 본회 회의실

에서 개최됐다.

9월말까지 적립키로한 자조금적립이 업계의 불황 등에 의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15일 자조금사업 추진 결의대회에서 밝힌 취지를 재 확인하면서 짧은기간 내에 목표달성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9월14일 현재 3천8백5십만원의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92 제1차 양계경영 진단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92 제1차 양계경영 진단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9월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영관리 및 수익성 분석, 경영안정과 시장 대응력 향상, 경영지표에 의한 경영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단 사업은 산란계 15개 농가와 육계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일지 기재에 관한 토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상과 사례발

표는 오는 '93년 한국양계박람회 개최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자율적인 입식조절 필요



9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일부 종란의 식란처분으로 난가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P.S입식을 종계업자 스스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병아리값 하락 원인을 물량과잉과 소비둔화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도 강구되었으며 무허가 축사 구제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감별분과위원회 개최 감별사 시험 12월4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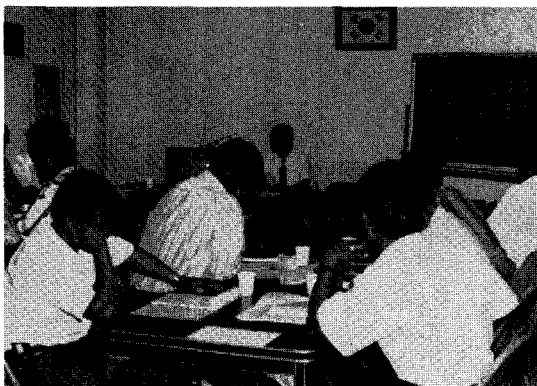
'92 제1차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수환)가 지난 9월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성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2월4일(금) 오전 9시에 강남병아리감별학원에서 감별사 자격시험을 치를 것을 합의했다. 시험기준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추후 보완할 사항은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이 장기해외출장으로 인해 남아있는 잔여임기동안 임병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과잉생산 예고



9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회의에서는 9월들어 추석전에 이미 2차례 가격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화가 계속될 것을 우려, 노계의 조기도태는 물론 강제환우는 시키지 않기로 했다.

자조금은 9월말까지 분회장 책임하여 배정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입추중단이 최선책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입추는 늘어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안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입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결론 짓고, 29일 11시 육계값 폭락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10월1일 개최하기로 했던 소비캠페인(가두 판매)을 병아리값이 하락하게 되는 시점으로 연기했으며, 육계인 대회때 열릴 난상토론에서는 개인마다 5분이내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93 카렌다 다이어리 제작

본회가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93년도 다이어리가 제작에 들어가 연말에 모두 배포케 된다.

닭고기 우수성 홍보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본회가 추진해 오고 있는 닭고기와 계란

에 대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닭고기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50분간 방영되었다.

축산시험장 정선부 박사, 한국식생활연구회 왕준련 회장, 명지대 식품영양학과 조정순 교수 및 경의대 한의학과 조동현 교수등이 출현한 이번 프로에서는 △닭고기 소비 실태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법 △닭고기의 건강상 효능 등이 방영됐다.(본문 p112참조)

홍일농장 한순사장 별세



한국 채란양계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홍일농장 대표 한순씨가 지난 9월18일, 오전 서울대학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향년55세인 한순사장은 지병이 있기 전에는 본회 채란담당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사로 활약하는 등 협회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당진육계분회 닭고기 홍보 가두캠페인

본회 당진육계분회(분회장 김종길)는 지

난 9월30일 당진시내에서 회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닭고기 홍보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닭고기 출하가격이 500원대를 믿도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자 당진분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3,000여마리의 닭고기를 판매했다.

'92VIV 양계·양돈전시회 참관 '93양계박람회 준비위해

본회의 '93한국양계박람회 개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우수한 양계관련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개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럽 전시회의 운영 등을 둘러 보기 위해 본회 신흥종회장, 오봉국고문, 최준구 부회장, 이규성전무가 각각 개별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현지로 가 홍보전과 시설자동화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귀국하게 된다.

